

현안과 과제

■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기대지수 상승세 반전



Executive Summary

□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기대지수 상승세 반전

(종합 평가) 2013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긴장고조 상태' 지속으로 나타났지만, 3/4분기 기대지수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과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의 소강 상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반전했다.

2013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북한의 3차 핵 실험이 실시된 1/4분기와 유사한 30.8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고조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4분기 기대지수는 1/4분기 큰 폭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해 전문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을 비롯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감소와 국제사회의 대화 국면 조성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특징) 2013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긴장고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6.7p 상승한 32.8을 기록했다. 이는 개성공단 잠정 중단 등 긴장고조 국면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3~4월 한미 군사훈련 이후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군사적 도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북당국 간 회담 제의와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 분야 시찰 회수 증가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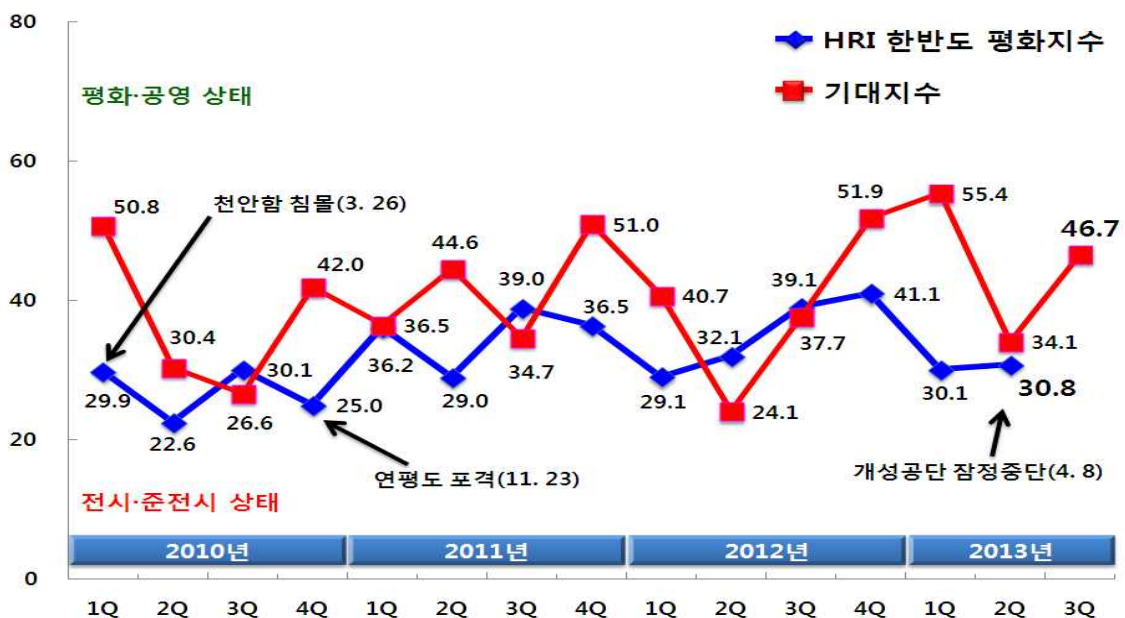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 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3년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2.6p 대폭 상승한 46.7을 기록해, 3/4분기의 남북관계는 현재의 경색 국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과 남한의 5개 민간단체 및 유엔아동계획(UNICEF)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국제사회의 6자회담 재개 노력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의 후속 실무회의 진전과 이행, 재가동 시기 여하를 비롯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UFG) 기간의 북한 대남 위협 발언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는 크게 하락하였다. 2/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9.9보다 11.1p 하락한 28.8로 나타남으로써 2006년 최초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교류지수는 18.5p 하락함으로써 5.24 조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 개성공단 잠정 중단과 이에 따른 남북경협 전면 중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 (종합 평가)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긴장고조 상태 지속으로 나타났지만, 3/4분기 기대지수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로 반전
- (한반도 평화지수)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0.8을 기록하여, 남북 간 '긴장고조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1/4분기 30.1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2/4분기에 전기 대비 0.7p 상승한 30.8을 나타냄으로써 지난 분기의 긴장상태 지속
- (기대지수) 1/4분기 큰 폭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해 전문가들의 2013년 3/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2.6p 큰 폭으로 상승한 46.7로 나타냄으로써,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
 - 이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과 남한의 5대 민간단체 및 유엔아동계획(UNICEF)의 대북 장애인·어린이 등 의약품 북송과 함께, 6자회담 재개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감소 등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2010~2013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 (특징 분석)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관적 지수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는 상승했지만, 긴장상태는 지속

- 2/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32.8로 지난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28.8로 지난 분기에 비해 대폭 하락
 - 이는 지난 분기 39.9를 기록한 정량분석지수가 약 10p정도 크게 하락한 반면, 26.1을 기록했던 전문가 평가지수가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임
- 남북 간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 가운데, 남북교역이 포함된 교류지수의 큰 폭 하락이 전체 정량분석지수의 하락세의 원인
 - 이는 북측의 노동자 전원 철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여파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됨으로서 교류지수가 약 20p 정도 크게 하락한 것에 기인
- 2013년 1/4분기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던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상승세로 반전했지만, 여전히 긴장고조 상태는 지속 중
 - 이는 시진핑 주석이 6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룡해 특사 역시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를 원하는 등 대화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남북관계가 바닥을 쳐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여전히 '긴장고조 상태'인 30.8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

< 2011~2013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교류지수		
		이벤트지수				
'13-2분기	30.8 (▲0.7)	32.8 (▲6.7)	28.8 (▽11.1)	29.9 (▽3.6)	27.7 (▽18.5)	46.7 (▲12.6)
'13-1분기	30.1 (▽11.0)	26.1 (▽7.8)	39.9 (▽8.4)	33.5 (▽14.6)	46.2 (▽2.3)	34.1 (▽21.3)
'12-4분기	41.1 (▲2.0)	33.9 (▲6.3)	48.3 (▽2.2)	48.1 (▽3.6)	48.5 (▽0.7)	55.4 (▲3.5)
'12-3분기	39.1 (▲7.0)	27.6 (▲0.4)	50.5 (▲13.5)	51.7 (▲15.4)	49.2 (▲11.5)	51.9 (▲14.2)
'12-2분기	32.1 (▲3.0)	27.2 (▲8.6)	37.0 (▽2.5)	36.3 (▽5.7)	37.7 (▲0.8)	37.7 (▲13.6)
'12-1분기	29.1 (▽7.4)	18.6 (▽13.3)	39.5 (▽1.6)	42.0 (▽9.4)	36.9 (▲6.1)	24.1 (▽16.6)
'11-4분기	36.5 (▽2.5)	31.9 (▽8.1)	41.1 (▲3.1)	51.4 (▲3.9)	30.8 (▲2.3)	40.7 (▽10.3)
'11-3분기	39.0 (▲10.0)	40.0 (▲18.2)	38.0 (▲1.9)	47.5 (▲2.3)	28.5 (▲1.6)	51.0 (▲16.3)
'11-2분기	29.0	21.8	36.1	45.2	26.9	34.7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 (항목별 평가)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 남북 간 긴장 고조 지속으로 정량 분석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전문가평가지수는 낙관 속 복병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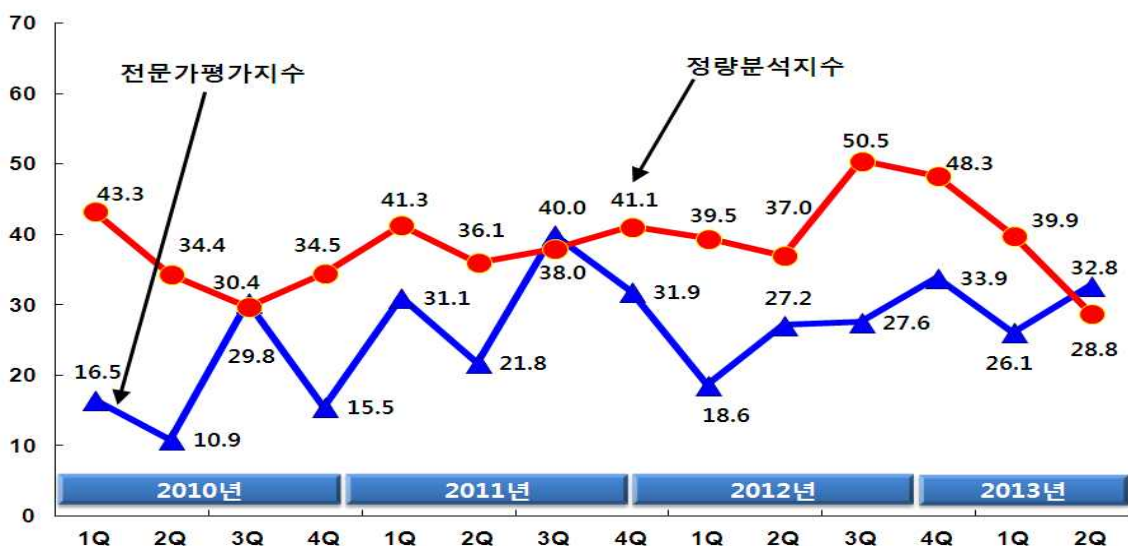
(1) 전문가평가지수 (2013년 1A분기 : 26.1 → 2A분기 : 32.8)

- 총 105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긴장 고조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6.7p 상승한 32.8을 기록했고, 1/4분기 기대지수 전망인 34.1과 유사해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함
- 전문가평가지수의 소폭 상승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 등의 긴장 고조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3~4월 한·미 군사훈련 이후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군사적 도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북당국 간 회담 제의와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 분야 시찰 회수 증가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2) 정량분석지수 (2013년 1A분기 : 39.9 → 2A분기 : 28.8)

- 2/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11.1p 큰 폭 하락한 28.8로 나타났고, 이는 2006년 최초 조사 이래 최저치로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천안함 침몰(34.4), 연평도 포격(34.5), 3차 핵실험(39.9)보다 낮아 남북관계가 총체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임

< 2010~2013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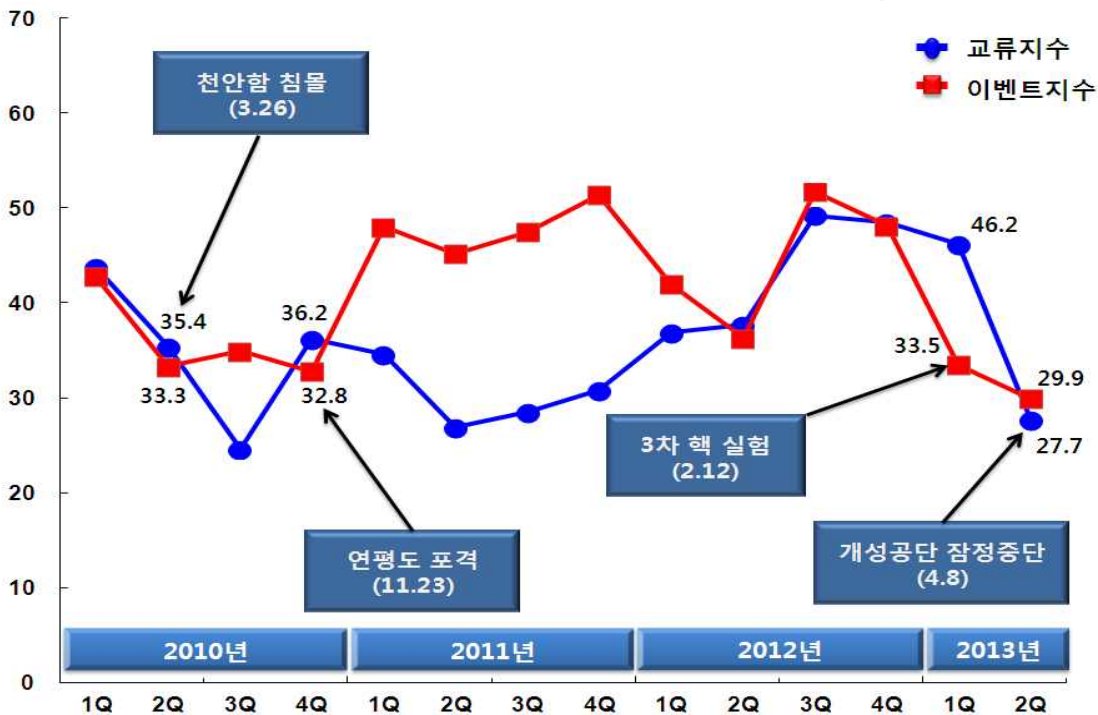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3년 1/4분기 : 33.5 → 2/4분기 : 29.9)

- 이벤트지수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기 대비 3.6p 낮은 29.9를 기록하여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줌
-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에 따른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 5월 중순 3일간 6차례에 걸친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개성공단 노동자 전원 철수에 따른 잠정 폐쇄 결정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특히 2/4분기 이벤트지수는 천안함 침몰(33.3), 연평도 포격(32.8) 당시 보다 낮아 남북 간 긴장 고조 상황이 심각함을 방증

② 교류지수 (2013년 1/4분기 : 46.2 → 2/4분기 : 27.7)

-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18.5p 하락한 27.7을 기록했고, 이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한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최저치로 기록
- 교류지수의 큰 폭 하락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 간 상업적 거래액(4분기 5억 5천만 달러→1분기 2억 2천만 달러)이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

< 2010~2013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중도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많이 상승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2.0, 37.1, 28.1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4.9p, 11.8p, 3.6p 상승하여 다소 긍정적 평가로 반전
 - 중도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큰 폭 상승한 것은,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우려 감소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대해 대화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 2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는 보수 성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성향 구분 없이 기대지수는 현재 평가지수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남
 -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상승함으로써 3/4분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
 - 이는 지난 5년 간 남북관계 경색의 지속과, 최근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 없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와 내부 경제개선 조치를 위해 대화기조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3. 2분기	32.0 (▲4.9)	49.9 (▲16.2)	37.1 (▲11.8)	45.9 (▲12.4)	28.1 (▲3.6)	44.3 (▲9.0)	32.8 (▲6.7)	30.8 (▲0.7)	46.7 (▲12.6)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0.1 (▽11.0)	34.1 (▽21.3)
'12. 4분기	34.3 (▲3.9)	57.6 (▲8.4)	37.1 (▲8.5)	57.1 (▲9.5)	30.6 (▲4.0)	51.0 (▽3.4)	33.9 (▲6.3)	41.1 (▲2.0)	55.4 (▲3.5)
'12. 3분기	30.4 (▲0.3)	49.2 (▲8.2)	28.6 (▽0.9)	47.6 (▲10.3)	26.6 (▲0.5)	54.4 (▲18.8)	27.6 (▲0.4)	39.1 (▲7.0)	51.9 (▲14.2)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12. 1분기	17.9 (▽19.1)	21.9 (▽23.0)	17.8 (▽9.8)	22.6 (▽17.1)	21.1 (▽11.0)	29.4 (▽8.7)	18.6 (▽13.3)	29.1 (▽7.4)	24.1 (▽16.6)
'11. 4분기	37.0 (▽2.5)	44.9 (▽5.7)	27.6 (▽12.3)	39.7 (▽12.0)	32.1 (▽5.2)	38.1 (▽12.3)	31.9 (▽8.1)	36.5 (▽2.5)	40.7 (▽10.3)
'11. 3분기	39.5 (▲11.5)	50.6 (▲11.2)	39.9 (▲23.1)	51.7 (▲23.4)	37.3 (▲14.6)	50.4 (▲13.8)	40.0 (▲18.2)	39.0 (▲10.0)	51.0 (▲16.3)
'11. 2분기	28.0	39.4	16.8	28.3	22.7	36.6	21.8	29.0	34.7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yhlee@hri.co.kr, 02-2072-6222)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2-2072-6221)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융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3년 7월 19일~31일 (13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 대표 등 북한관련 전문가 105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조사 내용

□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6	40.2
2. 그렇지 않다	54.3	44.9
3. 보통이다	26.7	13.1
4. 그렇다	10.5	1.9
5. 매우 그렇다	1.0	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8	46.7
2. 그렇지 않다	43.8	43.9
3. 보통이다	27.6	8.4
4. 그렇다	23.8	0.9
5. 매우 그렇다	1.0	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5	50.5
2. 그렇지 않다	53.3	39.3
3. 보통이다	26.7	6.5
4. 그렇다	9.5	3.7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0	2.8
2. 그렇지 않다	13.3	17.8
3. 보통이다	44.8	42.1
4. 그렇다	41.9	36.4
5. 매우 그렇다	0	0.9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5	34.6
2. 그렇지 않다	47.6	61.7
3. 보통이다	32.4	2.8
4. 그렇다	9.5	0.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	10.3
2. 그렇지 않다	37.1	57.0
3. 보통이다	31.4	23.4
4. 그렇다	28.6	8.4
5. 매우 그렇다	1.0	0.9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0.5	18.7
2. 그렇지 않다	51.4	64.5
3. 보통이다	16.2	16.5
4. 그렇다	1.9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	12.1
2. 그렇지 않다	30.5	40.2
3. 보통이다	35.2	24.3
4. 그렇다	30.4	20.6
5. 매우 그렇다	1.9	2.8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8	14.0
2. 그렇지 않다	51.4	51.4
3. 보통이다	30.5	26.2
4. 그렇다	13.3	8.4
5. 매우 그렇다	1.0	0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6.7	6.5
2. 그렇지 않다	35.2	49.5
3. 보통이다	47.6	35.5
4. 그렇다	10.5	8.4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7.1	19.6
2. 그렇지 않다	59.0	65.4
3. 보통이다	19.0	15.0
4. 그렇다	4.8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	5.6
2. 그렇지 않다	36.2	52.3
3. 보통이다	40.0	29.0
4. 그렇다	21.0	12.1
5. 매우 그렇다	1.9	0.9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7.1	27.1
2. 그렇지 않다	42.9	64.5
3. 보통이다	31.4	8.4
4. 그렇다	8.6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5.2	42.1
2. 그렇지 않다	57.1	49.5
3. 보통이다	25.7	8.4
4. 그렇다	1.9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5.2	26.2
2. 그렇지 않다	55.2	59.8
3. 보통이다	23.8	14.0
4. 그렇다	5.7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8.1	27.1
2. 그렇지 않다	48.6	60.7
3. 보통이다	29.5	12.1
4. 그렇다	3.8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8	8.4
2. 그렇지 않다	33.3	53.3
3. 보통이다	40.0	29.0
4. 그렇다	22.9	8.4
5. 매우 그렇다	0	0.9
계	100.0	100.0